

#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여운수(고려대학교)

세션명	워크숍1.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레그테크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1 (9F)	
참석자	사회	권현영(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발제	박만성(옥타솔루션)
	패널	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김윤식(SBCN)
플로어	약 12명 참여			

제안내용	<p>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 또한 지능화, 자동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개월간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안전한 금융 서비스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p> <p>이러한 맥락에서, 생체 인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추구하는 핀테크(Fintech)와 금융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법률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추구하는 레그테크(RegTech) 개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내외 금융 컴플라이언스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p> <p>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레그테크의 개념 및 최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핀테크와의 균형점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제안하고자 한다.</p>
요약내용	<p>인터넷 거버넌스는 1968년 미 국방부 상무부의 주관으로 루트서버(root server), 도메인을 관리하다가 후에 상용화되었다. 인터넷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도메인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규범 및 규제까지도 다루어지며 UN에서도 논의될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p> <p>현대화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규제대응(Compliance) 이슈는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IT대응 과제이며 이러한 규제에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레그테크(Regulation Technology)산업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IT기반의 다양한 레그테크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KYC(Know Your Customer)기술' 등을 이용한 자금거래방지가 그 예이다.</p> <p>레그테크는 최신 IT기술에 컴플라이언스가 접목되어야 하는만큼 핀테크 기술의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초기 비용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현재까지도 레그테크를 비용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정책건의를 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레그테크 기반의 준법대응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p>

논의 세부 내용	<p>가. 모두발언(권현영 교수)</p> <p>인터넷 거버넌스는 1968년 미 국방부 상무부의 주관으로 루트서버, 도메인을 관리하다가 후에 상용화 됨. 인터넷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도메인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까를 고민하다 후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까지도 다루어지며, 현재는 UN에서 논의될 만큼 국제사회로 그 영향력이 확장됨.</p> <p>나. 금융계 핀택/규제/랙택을 준수하는 Compliance(박만성 대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옥타솔루션 하는일: 자금세탁방지/역외탈세/보험사기/감사/지능형 전자메뉴얼</li> <li>2. 금융환경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화하는 트렌드: 초연결 금융거래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적인 트렌드</li> <li>-인터넷 뱅킹, 국제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른 국제자금세탁 방지 공조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 자금감사 국제공조</li> </ul> </li> <li>3. 준법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래의 여러 규제법(개인정보보호법 등)과 더불어 관련 기술과 함께 증가하는 규제</li> <li>-금융기관의 국제적 동조시스템으로 인해, 비협조적인 금융기관은 고립시키는 시스템을 형성하며역외 탈세 등을 방지</li> <li>-Compliance 대응인력 확대; 향후 금융기관은 준법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로 당락이 좌우될만큼 영향력이 커짐(당기순이익의 5%를 Compliance Risk에 사용 -악센츄어)</li> </ul> </li> <li>4. 자금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YC(Know Your Customer):자금거래방지도 중 하나로, 대출 전 고객의 거래내역 확인</li> <li>(예.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은 약 20억 규모의 미 대월 로펌 컨설팅 등을 받고있음)</li> </ul> </li> <li>5. 레그테크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규제대응의 악순환</li> <li>-내용:규제대응 신IT기술로서, 업종맞춤형/비용효율성의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li> <li>-인지/통제/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다량의 준법관련 정보 및 각종 규제에 대응</li> <li>-레그테크 기반의 준법대응 생태계를 구축하여 법무법인-레그테크 솔루션-금융위 등의 협의체 구축하여 사이버 블랙머니 관련 규제</li> </ul> </li> <li>6. 해외의 규제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FCA 사후관리</li> <li>-미국: 예측가능한 금융규제</li> <li>-중국: 사후관리에 집중</li> <li>-한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가상호평가기구</li> </ul> </li> </ol> <p>지정토론/ 이시연 연구위원 (기업 지배구조, 금융사 Risk Governance, 내부통제 전문)</p>
----------------	--

대부분 기업들(CEO)은 레그테크를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인식한다는 문제를 가짐.  
초기비용, 초기장애를 동반할뿐 정착이 된 후에는 비용대비 효율적인 시스템.  
레그테크 사용에 대한 CEO에 대해서 가시적인 보상이 따라야 초기 투자도 잘 이루어지  
며, 레그테크 서비스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

<질의응답>

질문) 가상화폐의 부작용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김윤식 답) 비트코인 거품은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이 잘못되어 발생한 불상사임.

블록체인의 기술력은 완벽하지만, 공식적으로 인가된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다.

<맺음 발언>

박만성 옥타솔루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레그테크 산업은 블루오션의 시장이다.

권현영 교수) 금융기관은 자금거래의 무인성에 기반하는데, 가상화폐 부작용의 이면에는  
아무나 금융기관이 되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또한 레그테크 산업은 기회와 위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부상하는 좋은 기술력이며, 이제는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논의와 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